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행동강령 정리

저자 : 꽃 피고 봄 오면

1) 기본

1. 사상가 추론(공통)

- 사상가 추론은 '핵심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싱어를 떠올리거나, '통치자-지혜, 방위자-용기' 와 같은 키워드를 보고 플라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상가를 추론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수능 대비 과정에서 모의평가 및 수능 기출 문항들을 풀어보실텐데, 풀어볼 때 사상가 별 추론의 근거를 밑줄 치면서 푸는 연습을 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윤리와 사상의 경우 사상가의 '시대'**를 잘 파악합니다.

ex. 지문에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주고, 운명론에 대해 언급한다면 스토아 학파, 근대 서양 사상가라면 스피노자로 추론 가능. 수능 응시 전에 각 시대별로 어떤 사상가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의 경우 시대를 확인하고 핵심어 위주로 사상가를 추론하면 딱 맞게 사상가를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2. 사상가 추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공통)

- 당연히 사상가가 추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선지를 보고, 묻는 바를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어떤 사상가인지 역추론

ex. 사상가를 모르는데, ㄱ. 세계 시민법은 ~ ~ ㄴ. 영구 평화 ~ ~ 와 같은 선지가 나온다면 문제의 사상가가 칸트임을 역추론.

2- 제시문 독해 (생활과 윤리)

--> 단순 암기 사상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 과시 소비, 체세포(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등등) 이때는 제시문을 보고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상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선지들 중 핀트가 어긋나는 선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3.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 2가지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1 - 일단 내가 모르면 남들도 똑같이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나만 모르는거 아니야?'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1문항 때문에 19문항이 지장을 받는 '소탐대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2 - 정오 판단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나면, 내가 한 번 보고 모르면 이건 모르는 개념이니 못푼다. 와 같이 생각하는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긴장한 탓에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보일 수 있다는 마인드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때 다시 잘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심화

1. ㄱㄴ, ㄱㄷ, ㄴㄷ, ㄴㄹ, ㄷㄹ 유형

- 2개는 무조건 맞고 2개는 무조건 틀리다는 걸 아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안다고 답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라고 적어둡니다.

1- 내가 2개의 분명한 정답 선지를 찾았다면 나머지 두 선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없다.

2- 내가 2개의 분명한 오답 선지를 찾았다면 나머지 두 선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없다.

3- 하나의 선지가 맞다고 판단했을 때 경우의 수는 2개로 줄어들며, 하나의 선지가 틀리다고 판단했을 때 경우의 수는 3개로 줄어든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선지 풀이에 있어 모든 선지의 정오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소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2. ㄱㄴ, ㄱㄴㄹ 와 같은 선지가 포함된 유형

- 되게 위험할 수 있겠지만, 보통 킬러 선지 하나로 인해 정답과 오답이 갈리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만약 내가 ㄱ,ㄴ이 무조건 맞다고 판단하였고 ㄹ이 애매한 상황에서 정답이 ㄱㄴ과 ㄱㄴㄹ로 갈리는 상황이라면, ㄷ에 대한 정오 판단은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벤 다이어그램

3가지를 명심합시다.

1) 벤 다이어그램은 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정오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지를 보고, '이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깐 맞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주어진 선지에 대해 다른 사상가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입장인지 공통 입장인지 무조건 확인합시다.

2) 1번 조언과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모든 사상가에 대한 정오 판단이 무의미함을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갑 만의 입장을 물어볼 때 갑이 선지의 내용에 대해 부정할 경우, 애초에 정답이 아니므로 을과 병 사상가들의 입장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갑과 을의 공통점을 물어봤는데 병 사상가가 이에 대해 긍정할 것이 확실한 경우, 갑과 을에 대한 정오 판단은 불필요하겠죠. 애초에 병도 이 입장에 동의하니깐요.

3) 벤 다이어그램 문항에 집착하지 맙시다. 벤 다이어그램이 바로 옆에 있는 토론 또는 칼럼 문항과 배점이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칼럼이 벤 다이어그램 문항보다 배점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을 모두 맞춘 이후 벤 다이어그램 문항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문항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렇더라고요.(자연과 윤리 파트라서))

4. 순서도

이것도 2가지 정도만 염두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1) 풀이 방법을 정해두는건 조금 그렇지만, 저는 단독 입장 -> 공통 입장을 묻는 선지 순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입장에서 막히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통 입장을 묻는 선지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 선지가 킬러인 경우가 많아 다시 돌아오기는 해야할 겁니다.) 이걸 저의 풀이방법이고, 결론은 쉬워보이는 선지부터 그냥 접근해서 푸세요.

2) 앞서 벤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내용인데, 모든 사상가에 대한 정오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 사상가에 대해서는 '예', 병 사상가에 대해서는 '아니오'로 대답이 나와야 맞는 선지가 있을 때, 애초에 을이 '아니오'라면 병 사상가에 대해서는 정오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1, 2 선지가 그렇습니다.

5. 일반적인 갑, 을에 대해 묻는 유형

- 이걸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갑과 을 모두를 물어보는 5번 선지부터 봅니다. 뭔가 5번 선지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